

출판 화제

범어집 '위대한 자기발견' 출간



생활속의 참선을 살하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총정)의 두 번째 범어집 <위대한 자기의 발견>(정토 권)이 나왔다. 지난 4월 출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서암스님의 범어집 <활활 탈고 같이 가세>가 '참선 입문서' 역할을 했다면, 이번 범어집은 '참선 수행의 길잡이'란 부제처럼 참선·독경·관법수행 등 생활속의 실제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에 대해서', '참선에서 일어나는 잡념을 떨치려면', '병상심을 유지하는 마음가짐', '연기관·수관(水觀)·해골관·태양관에 대해서', '수행의 올바른 점검에 대해서' 등 구체적인 자기 발견의 길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세수 83세, 법랍 65세 서암스님은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손수 공양을 만들어 드시는 소박한 수행생활로 선승의 사표가 되고 있다.

경험토대 '신도포교지침서' 발간



경기 화성군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장인 성일스님이 <신도포교지침서 상(上)·연중행사편>을 펴냈다. 24년간 원력을 기울인 포교 현장에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사찰에서 행하는 연중행사의 안내문으로부터 행사 진행, 설법 문안까지 자세하게 참고가 되도록 했다. 해마다 1천여명 이상의 수련원생을 배출하고 있는 성일스님은 그간 포교지침서로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를 펴낸 바 있다. 스님은 신홍사 포교 20년 결산으로 <신도포교지침서 하권(특별행사편)> 발간과 함께 이 세 가지 포교지침서를 비디오 테이프 제작할 계획이다.

'경전의 성립...' '불교철학사' 번역

시공불교총서 3·4권 두 권에 있는 불교학술서 2권이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시공사의 시공불교총서 제 3, 4권 <경전의 성립과 전개>(미즈노 고젠 저·이미영 역) <불교철학사>(D.J. 칼부 파하나 저·김종욱 역)가 그것. <경전의 성립과 전개>가 원시불교 경전에서부터 한역경전까지의 성립과 유포를 다룬 경전 성립사라면 <불교철학사>는 경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초기불교에서 후기불교의 전통과 관련된 중요학과 파나 불교학자들에 대한 철학사적인 연구서다. <경전의 성립>은 경전의 언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서사(書寫)됐는가, 대승경전은 불설인가 비불설인가 등 경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성립부터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표가 돋보인다. <불교철학사>는 불교 태동 이전의 인도철학이 지닌 절대주의적 성격과 불교의 상대주의적 태도를 대비시켜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등을 설명하면서 초기불교가 취했던 중도적인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문화재 수난사 일제 약탈등 수록

문화재위원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규열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이 <한국문화재 수난사>(돌베개)를 출간했다. 지난 73년 저서 <한국문화재 비화>를 통해 일본인에 의한 문화재 약탈사실을 고발해 일본사회에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규열씨가 새로운 자료를 보완, 제목을 바꿔 낸 것. 일제하에 현해탄을 떠돌던 시련의 경연사, 석굴암에서 사라진 오층스탑,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 도난 등 불교문화재의 훼손·도난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부모가 읽어주는 불교동화 아동 인성교육 첫걸음"

대원스님, 유아교육서 '불전설화와...' 펴내

유아를 위한 불교 교육용 교재이자 연구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인 대원스님이 쓴 <불전설화와 유아교육>(불광)은 불교 유아교육 분야의 국내 첫 저작물이다. 그간 불교문화와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서와 논문들은 다수 나왔으나 두 분야를 하나로 묶는 연구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자타카> 등 고존적이고 재미있는 불전설화를 유아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아동기의 종교적·도덕적 품성이 5~7세를 전후한 시기에 가장 발달하기 때문에 최초의 교사인 부모들의 '불교동화 읽어주기'가 자녀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시급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불교 유아교육의 첫걸음인 동시에 인성교육의 토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책은 불전설화의 종류와 기원, 동화적 특성, 주제 및 문유형, 사건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과 아동학 전문가들에게



의외, <자타카> 547편 중 의미가 큰 65편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타카>는 대부분 전래동화가 지니고 있는 도덕성의 주제, 즉 인과응보·인

재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유아들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원스님은 "불교 문화·종교 교육학자들이 참가하는 불교유아교육 분야의 연구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동화 재화작업의 활성화 및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현실 적용과 교육효과 측정 등이 필요하다"고 재언한다. 스님은 또 동국대 중앙승가대학에 불교유아교육과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난 86

'자타카' 인과응보·지혜등 도덕성 결집 "불교유아학과 개설·재구성작업 서둘러야"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10 best-selling books in the Buddhist children's category.

년 개설된 동국대 불교아동학과가 전국 3백여 불교유치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과, 100%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유아교육의 유아교육학과와는 달리 비사범계열이라 50명 정원에 15명(30%)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는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70% 이상이 기독교 성향의 유치원교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불교의 불입이 분명하다.

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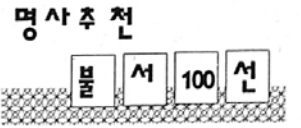
난해한 '유식 30송' 일상에 쉽게 접목

'유식(唯識) 불교'는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펴낸 정호스님(부평 정굴에서 정진중)은 세친보살의 <유식 30송>을 명쾌하게 풀이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유식의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 따르면 '유식'은 '없이 곧 삶'이라고 가르친다. 맑은 삶의 진솔한 모습이며 열린 세계라는 것이다. 또한 '유식성(唯識性)'이란 '현전(現前)하는 부처', 곧 '우리 자신을'로서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나타낸다.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매순간마다 그대로 부처님 자신이며, 유식성 그 자체라는 것. 즉 <유식 30송>은 유가 수행자들이 삶의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실한 가르침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장경각 8천원>

불교경전속의 수사학적 표현 고령성 지음

경전속 비유화법 보편언어화 시도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저자 고령성(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씨는 "출세간적인 삼장(三藏)의 언어를 세간적 언어로 환원시키는 일이 불교사상을 보편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서양 수사학의 비유(比喩)에 상응하는 불교경전 속의 비유의 화법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 불경의 '시대'에 맞는 보편적 언어로의 '표현'을 모색한다. 고씨는 불경은 화자의 메시지를 받는 청자의 삼속에 배어있는 주어(주체)를 환기·복원시키는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를 화자로(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저자는 한국어 문장에 있어 서의 주어의 복원을 통한 함력(涵)과 문장력(敦)의 조화로움 만남, 문어와 구어의 벽을 허물기라는 '활달한 한국어의 구사'를 요청한다. <경서원 1만2천원>



'그 마음을 바쳐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다 제 목을 열심히 하다 가 지만 정말 값있고 밝게 제 목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김재웅법사(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그중의 한 사람이 분명하다. 스승 백성육박사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스승을 공경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리라. 스승께서 모든 이를 다 부처님으로 보라고 하셨지만 무엇보다 스승을 부처님으로 모셨기에 부처님 시봉하는 일로써 그 일은 가능했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바쳐라>(용화)란 제목의 이 책은 스승께서 일러주시는 시대의 가장 간명함 수행법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닦는 방법중에 이렇게도 간명함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이 책은 <닦는 마음> <머무는 바



류종민 (중앙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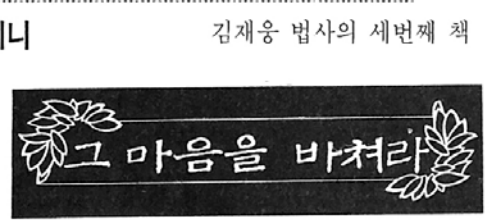
"자기 다스려 세상화목 이루는 마음닦는 직접적인 방법 제시"

없이 마음을 내라)의 후속편이다. 이기에 그 전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연구서였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바치는가, 그 바친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근원적으로 밝아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역사적 실재에서, 생활의 실재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큰 단위의 안목과 순간 순간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쉬운 일화와 언어로 자세히 일러준다. 그 마음을 바쳐 비우지 못하고 남겨둔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며 마음을 닦는다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게 한다. '그 마음을 바쳐라'는 일상의 모든 일에 한 마음을 닦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와 병행해서 하루가 고 있다. 널리 읽혀 왔던 <닦는 마음>은 맑은 마음의 뒤를 이어 전문적으로 마음닦는 분들을 위한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엮게 되었다고 하며 "자기 마음 다스려서 가정과 직장,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서두에서 말한다. 한 국가와 국민의 문화적 척도는 그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 있으며 얼마나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물질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보여진다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바쳐라>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고 앞으로 올 시대의 삶을 진정 맑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1부 금강경 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맑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 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나,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우하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를)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계·화엄경약찬·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 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 474-82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전신 불자님은 서신과 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